

복수 후에 남겨진 것들,
『조씨고아 : 복수의 씨앗』

손 태 민

(사)인본사회연구소 사무차장

국립극단의 레퍼토리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이 지난 11월 3~4일 이틀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연극 ‘조씨고아’는 중국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조씨고아’(기군상 作)를 원작으로 하며 국립극단의 고선웅 연출이 직접 각색하고 연출하였다. 2015년 초연되어 수차례 매진과 기립박수를 일으킨 연극으로 원작의 나라 중국에도 초청되었을 정도로 국내·외 할 것 없이 찬사를 받는 작품이다. 부산에서는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공연되었다.

기원전 진나라 시절, 대장군 도안고는 충신 조순에 대한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공연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포스터

질투와 권력에 눈이 멀어 조씨 가문에 반란죄를 씌워 몰살 시킨다. 멸족의 상황 속 조씨 가문은 마지막 핏줄인 조씨고아를 살리기 위해 집안을 왕래하던 의사 정영에게 맡긴다. 은혜를 입었던 조씨 가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정영은 조씨고아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자기 자식을 희생하여 조씨고아를 살려낸다. 그 충격으로 정영의 아내는 자결한다. 온 가족을 잃은 슬픔을 삼키고 정영은 조씨고아를 아들로 키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도안고는 정영을 자신의 심복으로 삼고 후사가 없었기에 정영의 아들로 알고 있는 조씨고아를 양아들로 삼아 무예를 가르치고 자신의 뒤를 잇게 한다. 20년의 세월이 지나 조씨고아가 장성하자 정영

은 도안고의 극악무도한 짓과 조씨 가문의 참혹했던 옛 순간을 알려주며 도안고에 대한 복수를 청한다. 복수는 성공하여 도안고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조씨고아는 조씨 가문을 복권시킨다. 명백한 선의 승리, 권선징악이다.

복수를 마치고 연회를 즐기기 위해 해맑게 떠나는 조씨고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정영은 처연했다. 아니 처량했다. 혼자 무대에 남은 정영은 그간 희생되었던 인물들과 마주한다. 그들에게 용서와 위로를 구하지만 스쳐 지나갈 뿐이다. 마지막으로 마주친 아내와 자식에게도 외면당한 정영은 공허한 눈빛으로 무대를 떠난다. 누구보다 복수를 위해 달려왔다. 자식과 아내마저 떠나보내고 원수의 집에서 20년을 지냈다. 원수를 친아버지처럼 따르는 조씨고아를 설득하기 위해 팔까지 자르며 진실을 전했다. 복수를 완수해야 한다며 울부짖고 걱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정영에게는 세월에 하얗게 세어버린 머리칼과 깊은 주름의 회한만 남았다. 복수를 다 하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정영은 무거운 짐을 지고 20년을 버텨내었지만, 그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 세상은 꼭두각시의 무대.

북소리 피리소리에 맞추어 놀다 보니 어느새 한바탕의 짧은 꿈.

갑자기 고개를 돌려 보니 어느새 늙었구나.

이 이야기를 저울삼아 알아서 잘들 분별하시기를.
 이런 우환을 만들지도 당하지도 마시고 부디 평화
 롭기만을.
 금방이구나, 인생은.
 그저 좋게만 사시다 가시기를.’

하얀 나비 한 마리와 장자를 연상시키는 대사를 마지막으로 정영의 공허함과 함께 관객에게도 묵직한 여운을 남기며 극은 막을 내린다. 20년에 걸친 복수 이야기, 무거운 주제로 자칫하면 어둡기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고선웅 연출 특유의 리듬과 운율을 통해 살아있는 연극을 만들어 냈다. 무대와 관객이 함께 호흡함으로써 연극은 완성되고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생긴다.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기에 막을 내리는 순간까지 관객석은 조용하였고 커튼콜에서는 약속한 듯 기립박수가 나왔다. 이런 관객과 무대의 호흡이 연극이 주는 매력이 아닐까? 여운이 남고 재관람 욕구도 불러오는 이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11월 30일부터 12월 25일까지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된다고 하니 연말을 더 뜻깊게 보내고 싶은 분은 꼭 보시길 추천한다.

인문세상